

총장 선출, 70년 만에 구성원 손으로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제16대 총장은 구성원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제도에서 선출·임명된다. 우리학교 개교 70년 아래 사상 처음으로 ‘총장 선출 3단계 구조’와 ‘구성원 투표 시행’을 채택한 차기 총장 선출제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 문턱을 지난달 21일 넘어섰다.

지난 11월 20일 교수의회, 양 캠퍼스 총학생회, 직원 노동조합 등 학내외 구성원 10개 단체가 참여한 총장선출 범경희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와 법인 공영일 전 이사장, 조여원 전 상임이사는 7시간 가량 진행된 마라톤협상 끝에 차기 총장 선출제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일 합의안은 지난달 21일 법인 이사회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시작된 구성원과 법인 간 차기 총장 선출제 논의가 재개와 결렬을 반복한 지 6달 가량 만이다. 지난 5월 양측은 ‘차기 총장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에서만 선출·임명하자’고 합의하고 6월부터 차기 총장 선출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인에 따르면 차기 총장 선출제 단일 합의안이 상정된 지난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3단계 구조’와 ‘구성원 투표 시행’ 골자가 수용됐다. 다만 차기 총장 선출 일정과 선출제 규정 재개정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이사회 이후 범대위와 법인 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정된 총장 선출제는 총장 선출 과정을 모두 3단계로 나눴다. 총장후보자를 두고 구성원 투표를 시행해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그간 법인 이사회가 우리학교 총장을 단독 선임·임명하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다만, 일방적인 선임 구조를 탈피하면서도 최종 총장 선임 권한은 그대로 법인에 부여해 법인의 기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차기 총장 선출은 ‘총장후보자추천→총장후보자임명→법인이사회최종선임’ 3 단계 구조로 이어진다. ‘총장후보자추천’ 단계에서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장위)가 총장후보자 공모와 결격자 판별을 진행 한다. 총장위는 우리학교 구성원 4주체 대표 30명과 법인 대표 5명 모두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 4주체 대표 30명은 다시 교수 대표 15명과 학생·직원·동문 대표 각각 5명으로 이뤄진다. 총장위의 결권 비율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법인이 각각 15:5:5:5:5씩 갖는다.

총장위가 추천할 수 있는 총장후보자 수

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총장위가 검증을 완료한 총장후보자 전원은 2번째 단계인 ‘총장후보자임명’ 단계에 회부된다.

‘총장후보자임명’ 단계에서 구성원 투표가 시행된다. 구성원 투표를 통해 총장위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최종 3인으로 추려낸다. 이는 차기 총장 선출제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목이다. 총장후보자를 두고 교수와 직원은 직선제로, 학생과 동문은 간접제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각각 14:4:4:4이다.

투표 방식은 연기명 투표가 채택됐다.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은 총장후보자 중 3인에게 기표하고, 표결 결과 최다 득표 3인은 무순위로 법인 이사회에 전달된다. 이후 법인 이사회는 구성원 투표로 압축된 최종 총장후보자 3인 중 한명을 우리학교 총장으로 선임한다.

우리학교 총장 선출제는 구성원 참여와 더불어 교수 사회의 의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총장위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비율은 총장위 개념을 도입한 타 대학 총장 선출제와 비교해 전체 구성원 대비 교수 비중이 낮다. 30명으로 구성되는 고려대 총장위는 교수가 15석을 가져 전체 비중에서 50%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학교 차기 총장 선출제의 총장위에서 교수 비중은 43%로 고려대 총장위의 교수 비중과 비교해 7%p 가량 낮다.

전체 구성원 대비 교수의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이 약 54%로 제한된 것 역시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과 비교해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구성원 직선제가 도입된 이화여대는 전체 구성원 대비 교수가 차지하는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이 77.5%에 육박한다. 우리학교 차기 총장 선출제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인 것과 비교해 23%p 이상 높다.

교수의회는 “교수·학생·직원·동문·법인 모두가 총장위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이해 관계에 편중된 총장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최종 총장후보군을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투표로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총장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총장위 구성과 선거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선거 업무의 주진이 향후 남아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 또한 결코 적지 않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야 한다.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장위가 추천할 수 있는 총장후보자 수

‘행정·경영 역량’, ‘소통적 리더십’ 갖춘 차기 총장 바란다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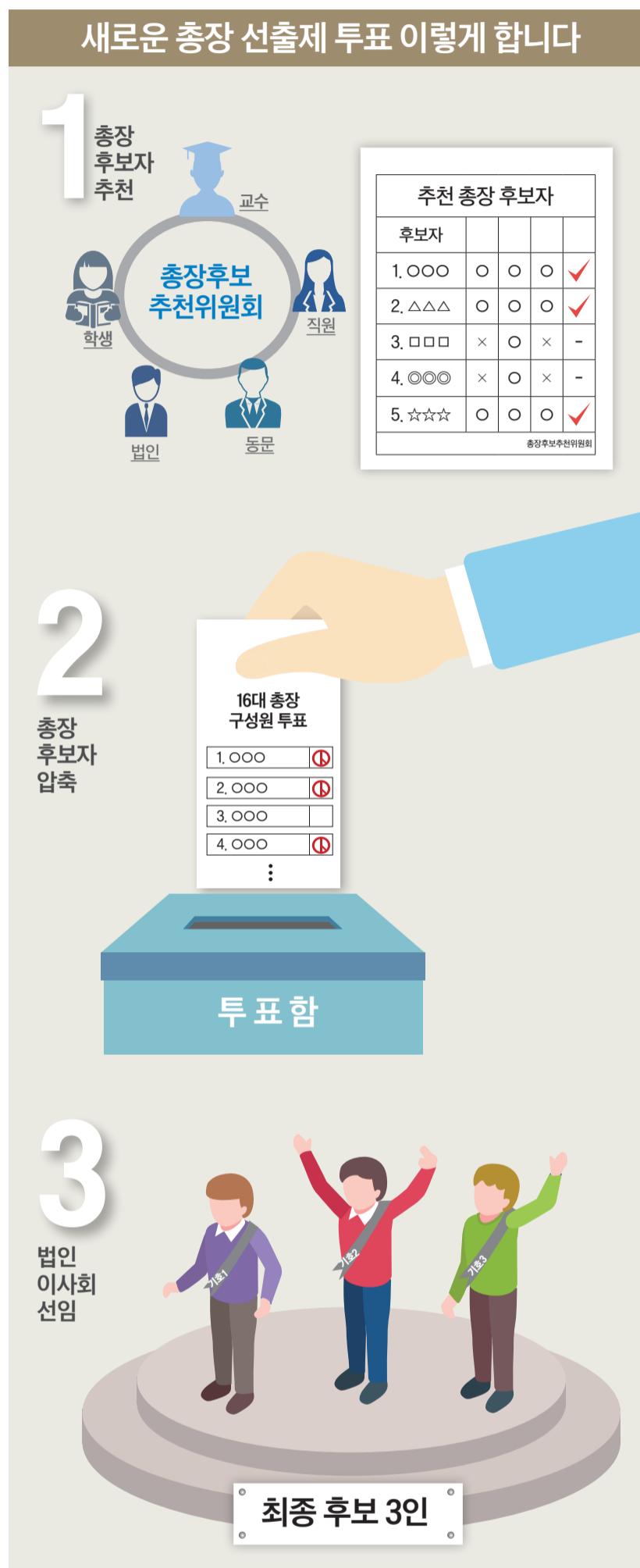
제16대 총장 선출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 우리학교 구성원은 신임 총장에게 행정·경영 역량과 소통적 리더십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총장단은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교수·학생·직원·의료원 구성원 등 구성원 38,679명을 대상으로 제16대 총장 선출 구성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11,951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0.7%p로 추산됐다.

구성원이 생각하는 신임 총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행정·경영 역량(31.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미래비전(25.4%)’, ‘교육철학(25.3%)’, ‘학문적 자질과 소양(8.6%)’, ‘사회적·국제적 명망(6.6%)’, ‘기타(3.0%)’ 순으로 이어졌다.

설문 응답자를 교수, 학생, 직원, 의료원 구성원으로 구분해도 4개 구성원 구분 모두 신임 총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행정·경영 역량’을 선택했다.

특히 직원(51.1%)과 의료원 구성원(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



〈경희학원 17대〉
공영일 이사장 사퇴

〈13·14·15대 총장〉
조인원 이사장 선임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
총장 직무대행 임명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법인 공영일 이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조인원 전 총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우리학교는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섰다.

지난 11월 21일 학교법인 경희학원 공영일 제17대 이사장이 사퇴했다. 공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일신의 이유로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7대 이사장의 임기 만료는 2019년 3월 31일이나 이를 5달 가량 앞둔 시점이다.

이에 법인 이사회는 조인원 전 총장을 총장 임기 마지막 날인 11월 23일부터 법인 제18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조인원 전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12년 간 우리학교 13·14·15대 총장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3일 조인원 전 총장은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69년 경희의 전통과 함께 학문의 미래, 사회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멋진 대학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그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견됐던 제16대 총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11월 21일 법인 이사회에서 박영국(치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은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후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라며 “관련법과 제도, 규정에 근거해 대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곧 진행될 차기 총장 선출 과정이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면서 품위 있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대행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 총장 선출제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차기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 선출 과정이 경희의 빛나는 전통이 되고 국내 대학과 한국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게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였다. 학생은 ‘행정·경영 역량(28.5%)’과 ‘교육철학(27.4%)’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다. 교수와 의료원 구성원은 ‘미래비전’을 각각 27.2%와 30.3%로 전체 평균보다 높이 꼽았다.

신임 총장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구성원은 ‘소통적 리더십(46.2%)’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미래지향의 혁신적 리더십(33.0%)’, ‘도덕적 리더십(10.7%)’, ‘사회적·지구적 리더십(6.1%)’, ‘카리스마 리더십(2.6%)’,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소통적 리더십 또한 4개 구성원 구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특히 직원은 50.7%로 전체 평균(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래지향의 혁신적 리더십’은 교수(40.6%)와 의료원(39.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